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9호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진각 100년' 마스터플랜 문화사업에 방점 찍다

진각종, 문화·교화사업단 신설… 新 발전 동력 갖춰

창종 70주년을 맞은 진각종이 '진각 100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진언행자의 자세를 점검하고, 새로운 서원불사를 통해 종단 역량을 한 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최근 문화포교 확대와 종단 미래 교화 등을 위해 진각문화사업단과 국제교화사업단을 신설하고, 각 단장으로 총무부장 호당 정사와 사회부장 덕운 정사를 임명했다. 별도의 사무국과 실무팀도 꾸려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웠다.

진각문화사업단서 눈길을 끄는 것은 총인원의 '밀교공원화(가칭)'다. 현재는 사업 구상단계지만 '빛'과 '명상'을 테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관조명 설치와 '밀교걷기명상로' 마련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인원·전승원 등과 어우러지도록 구성하는 한편, '마음'을 주제로 구간을 나눠 각 길에 담긴 의미가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승원 로비층 강당을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해 대관사업을 전개하고, 문화예술 단체에 상주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불교·지역문화예술단체에 상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엄정한 심사를 한 뒤 강습·동호회 육성지도·기획공연 등의 의무도 부여한다. 인재 육성과 예술 창작에 일조하도록 해 종단 문화기반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단 내 자체 전문문화단체를 설립해 불교계 문화전반을 이끌어갈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가장 눈여겨볼 일정은 전승원서 열리는 회당문화축제다. 그동안 회당문화축제는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서 개최됐다. 올해는 성역불사를 회향하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회당 대종사와 진각종의 대중화·사회화를 위해 서울서 행사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당문화축제는 6월 15일 헌공불사가 끝난 뒤 막이 오른다.

총인원 '밀교공원화' 부터
공연장 대관사업 등 나서
지역연계 문화 확대 추진

회당축제 서울서 첫 개최
대중화와 성역불사 강조
"종단 문화정체성 찾는다"

총무부장 호당 정사는 "울릉도 회당문화축제가 '보은 문화불사' 성격이라면 서울 회당문화축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제'라고 볼 수 있다. 총인원 성역화 마무리의 의미를 지역이 공감하도록 기획했다"며 "서울서 처음 열리는 회당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축제장소 변경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진각문화사업단은 전승원에 등(燈) 공방을 설치해 제작·보관·전시·교육·체험 등이 가능한 상설 문화공간 마련에 힘을 싣는다. 전속작가와 공모전을 통한 작품 확보, 특별전시, 수익형 사업 등 전승원의 랜드마크화를 위한 핵심콘텐츠로 활용된다. 진각문화사업단은 △문화콘텐츠팀 △등문화사업팀 △출판팀 △공연장팀 △문화교육팀 △지역교류사업팀 등 세부조직을 갖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교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담하는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성격의 체험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심인당은 사찰이 아니어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수 없고, 전통사찰과는 다른 진각종만의 문화를 녹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험프로그램은 전통문화투어 등과 연계해 시작하고, 차츰 다듬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심인당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현대적 시설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단 점에서 기존 템플스테이와는 차별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각종은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제2의 종단 중흥을 도모한다. 사업방향과 관련해 호당 정사는 "지금은 문화시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사업은 진각종이 전통문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종단만의 문화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작불사가 될 것"이라며 "통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서 진각밀교 노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사찰음식 호텔서도 맛보세요

국내 최고급 호텔식당에서 이색적인 코스요리가 탄생했다. 바로 사찰음식 코스요리다. 서울 파크 하얏트 호텔은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5월 24~28일 5일간 '사찰음식의 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제철 재료와 직접 담근 발효장을 활용한 사찰 음식은 높은 호응을 얻었다. 페데리코 하인즈만 총주방장에게 사찰음식을 설명하는 선재 스님의 표정이 해맑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파크 하얏트

종교도 빈부 격차… '금수저'가 더 믿는다

〈서울사회학〉 수록 논문서

강남·서초 有종교 50% 상회
은평·마포 서북권 30% 불과
서울 2030 불자 4% '빨간불'
불자들 '행복도 높음' 희망적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의 종교생활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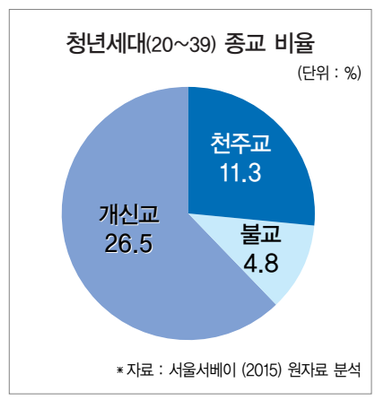
변미리·오세일 연구팀은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사회학〉에 수록된 '청년세대, 피안은 어디인가: 행복·종교·세대의 관계성 탐색' 연구에서 현재 서울 청년들의 종교 생활을 분석했다.

탈종교 심화… 청년 불자 枯死 위기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20~30대 청년들은 43%가 종교를 가졌다. 이는 중년(46.5%)·베이비붐 세대(52.5%)보다 낮은 수치다. 60대 이상 고령세대는 60.5%가 종교를 신앙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청년세대의 종교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2007년 청년세대의 '종교 있음' 비율은 47.3%였으나 2015년에는 42.8%로 4.5%가 줄었다. 40~51세의 장년층 역시 '종교 있음' 비율이 최근 5년 사이에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불교에게 더 좋지 않다.



청년 세대에서의 불교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2015년 서울서베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0~30대 청년세대 중 불교 인구는 4.8%에 불과하다. 60대 고령자 중 22.7%가 불자인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40대 장년세대에서도 불교 인구는 8.7%에 그쳤다. 이는 가톨릭(9.8%)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 청년세대 중 26.5%는 개신교를, 11.3%는 가톨릭을 믿었다. "서울시에서 종교를 가진 청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교(개신교+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도 금수저 전유물되나

연구팀은 지역별 청년세대 종교 인구 분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상층 이상이 밀집한 서초·강남·송파구 등 동남권 지역의 청년 중 유(有)종교인 비율은 50% 이상을 상회했다. 반면 금천구·관악구·은평구·영등포구 등은 30% 가량의 청년들이 종교를 믿었다.

연구팀은 "청년층의 '유종교' 비율은 주로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높다"며 "개신교 비율은 동남권에서 32.8%로 압도적이다. 이는 대형교회가 밀집한 강남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불자 '행복도'는 최고

하지만, 종교를 신앙하는 행위가 청년들의 행복을 크게 증장시키지는 못했다. 질병과 금전, 우울의 측면에서 종교의 사회적 지원망을 분석한 결과 개신교(긍정 응답, 72.1%)와 가톨릭(73.5%)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무종교인(71.4%)과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불교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평균 75.3%으로 다소 높았다.

이는 종교유형별 행복 지수에서도 나타난다. 불자 청년들은 10점 만점 기준 7.36으로 행복도가 가장 높았으며, 개신교(7.29)·가톨릭(7.22)·무종교(7.17)가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종교를 가진 청년들의 행복감과 종교 간 관련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종교 신앙 행위가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영향을 받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직선제 결국 무산

5월 24일 중앙종회서 부결

불교 종단 최초의 직선제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태고종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가 태고종 종회의 이전투구 속에 무산됐다.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종정 혜초 스님, 원로의장 덕화 스님 등이 종회 시작과 함께 종회의원 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찬성표는 종헌 개헌이 가능한 38표에 턱없이 부족한 20표에 불과했다.

5월 24일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가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개최한 '제129회 임시중앙종회'는 시작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총무원장 제안으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예정됐지만, 종회 시작과 동시에 종단 분쟁의 한 원인이었던 '호법원장 선출에 대한 추인 안건'이 첫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호법원장 선출의 정당성을 두고 2시간 동안 종회서는 고성이 오갔다. 중재 끝에 결국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상정, 표결에 들어갔지만 부결됐다. 이날 종헌 개정이 부결되며 오는 7월 중으로 예정된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출은 현행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월봉 스님을, 부위원장에 법련 스님을 임명하는데 동의했다. **노덕현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2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4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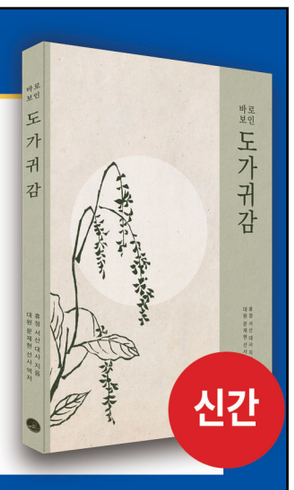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서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간



달다 – 전강 대선사 법어집

공안참구법의 봉화와 같은 지도서
달다를 스승 삼아 참선합시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